

2022년 7월 31일  
금문교회 주일예배  
조은석 목사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John Returned to Jerusalem  
사도행전 Acts 13:13

13.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바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Now Paul and his companions set sail from Paphos and came to Perga in Pamphylia. And John left them and returned to Jerusalem.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교지 무단이탈”입니다.

선교는 “영적 전쟁”과 같고, 선교지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선교지를 무단이탈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젊은이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훗날 로마교회에서 베드로와 함께 사역했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마가복음서”를 기록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방금 시작한 선교의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책임자인 바울이나 바나바의 동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그가 삼촌이었기 때문일까요? 바울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선교지를 떠난 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선교여행이 시작되었을 때, 바나바는 요한을 동행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려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Now Barnabas wanted to take with them John called Mark. But Paul thought best not to take with them one who had withdrawn from them in Pamphylia and had not gone with them to the work.  
사도행전 Acts 15:37-38

마가요한을 두고 두 명의 지도자가 의견이 갈립니다. 바나바는 제2차 선교여행에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닙니다. 그건 옳지 않다. 이전에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난 자가 아닌가? 일하러 가는 길에 동행하지 않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And there arose a sharp disagreement, so that they separated from each other. Barnabas took Mark with him and sailed away to Cyprus. But Paul chose Silas and departed, having been commended by the brothers to the grace of the Lord.  
사도행전 Acts 15:39-40

여기서 두 지도자는 어떤 타협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결별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16:36-40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이들보다 더 단단한 영적 결속을 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곧 마가요한 때문에 이들이 갈라졌습니다.

오늘은 마가요한이 선교지에서 무단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을 집중해서 말씀 증거 합니다.

앞서 선교지를 “영적 전쟁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는 “영적 군사”라고 하겠습니다. 군인이 전쟁터를 벗어나는 행위는 중대한 범법행위입니다. 전시에는 부대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동경로를 따라 군인은 행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병영을 이탈한 것을 “탈영”(desertion)이라고 하는데, 전시(wartime)에는 즉결처분(immediate decision) 대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군형법(Military Criminal Act) 제30조는 “군무이탈”(absent without leave) 혹은 “탈영”(desertion)을, “군에서 저지르는 범죄 중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정의합니다.

전시에 적을 바로 앞에 두고 군무이탈하면 “사형(execution), 무기(life imprisonment) 혹은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 받습니다.

요한이 선교여행 중간에 떠난 것을 오늘날 대한민국의 군형법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조금 비추어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서로 헤어지는 결과가 난 것이 아닙니까?

성경 자체는 요한이 “왜”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를 세심하게 읽어 분석한 NIB (New Interpreter's Bible) 주석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에 나오는 동사 “떠나”(he left)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포코레오”(apoxoreo)를 주목합니다. 헬라어 70인역 (LXX) 예레미야(Jeremiah) 46:5에는 “겁먹어 도망치는 행위”를, 헬라어 본문 마카비3서 (3 Maccabees) 2:33은 “배교”까지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도 바울이 마가요한에 대하여 가진 부정적 평가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를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다른 각도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전체의 그림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와 바울서신 전체를 한 눈에 읽습니다.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초대교회의 교회, 곧 세상 모든 교회의 근본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어쩌면 요한은 자기 스스로 “명분”을 지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행하는 자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그는 “수행하는 자” 신분이었습니다. 두 지도자들의 지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그의 사역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지난 주 설교 때 무대였던 섬 구브로는 요한과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는 요한을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처음부터 새로운 사역훈련을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요한이 로마에서 교회사역과 복음서 기록 등에 놀라운 일을 이룬 것을 보면, 구브로에서 바나바의 지도 아래 좋은 훈련을 받았을 것으로 충분히 추측이 가능합니다.

바울과 요한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자기를 크게 도왔던 바나바와 헤어지는 것을 결정할 정도로 요한의 이탈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바울이 로마에서 제1차로 투옥되었을 때 그가 기록한 네 편의 편지들 중에 “골로새서”는 요한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Aristarchus my fellow prisoner greets you, and Mark the cousin of Barnabas (concerning whom you have received instructions—if he comes to you, welcome him).

골로새서 Colossians 4:10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마가요한이 로마에서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곁을 지키며 그를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제2차로 투옥되었을 때, 그가 그 때 기록한 디모데후서에서 마가를 언급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Luke alone is with me. Get Mark and bring him with you, for he is very useful to me for ministry.

디모데후서 2 Timothy 4:11

바울의 목회사역의 가장 끔찍머리에서 순교 직전에 기록한 디모데후서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디모데를 부르면서 그가 올 때 마가와 동행하라고 썼습니다. 그가 그의 목회에 대단히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단히 필요하다!

요한이 구브로에서 바나바의 선교훈련을 받은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서 어떤 훈련을 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세상을 사랑한 경우”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라면 그 까닭이 어딘가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For Demas, in love with this present world, has deserted me and gone to Thessalonica.

디모데후서 2 Timothy 4:10a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던 데마. 그와 비교할 때 마가요한은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가 달랐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추측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토록 화를 낸 데서 혹시 마가요한도 세상을 사랑하여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더라면 바나바가 제2차 선교여행 출발 때 그토록 간절하게 그를 추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화를 낸 것은 오히려 “짧은 생각”의 발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가능합니다. 바나바는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섬겼습니다. 바울은 말하자면 신입자였습니다. 사역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사역을 감당할 때, 안팎에서 관점과 방법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달리 우리 교회는 다른 중점사항이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다양성을 성령님 안에서 하나로 통합하는 지혜입니다.

평안의 때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Eager to maintain the unity of the Spirit in the bond of peace.  
에베소서 Ephesians 4:3

마가요한이 선교지를 이탈한 것을 바울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바나바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 이런 토론도 가능합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마가요한이 처음에는 크게 잘못했으나, 나주에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의 귀한 일군이 되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바나바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의 입장과 시각의 차이가 있을 뿐, 처음부터 마가요한에게는 큰 잘못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결국 바울이 나중에 시인하고 마가요한과 화목하고, 협력하는 선교사역의 길을 간 것입니다.

요한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을, 바울이 오해하는 어떤 “좋은 동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요한마가가 섬겼던 예루살렘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와 그 집이 있는 곳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When he realized this, he went to the house of Mary, the mother of John whose other name was Mark, where many were gathered together and were praying.

사도행전 Acts 12:12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마가요한이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것이 “교회”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던 데마와 사뭇 다른 모양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가능하지만 저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일에 대하여 함부로 상상력에 근거한 추론을 계속 진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 있는 네 명은 서로 다른 개인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하나로 부르셔서 “교회”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1. 다만 사람은 누구나 마가요한(John Mark)처럼 처음에 실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돌아서서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그리고 바울(Paul)처럼 보다 넓게 보고 포용하지 못한 초기의 실수를 훗날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런 약점을 결정적인 것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계속하여 그를 훈련시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3. 바나바(Barnabas)처럼 어떤 경우에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포용하고 감싸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길이 아니면 다른 길로도 선교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4.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Luke)는 제13장에 이르러 “바울”을 앞장세우는 선교여정기록(mission journal)을 이끌어갑니다. 이 시점에서 공교롭게도 바나바가 떠나고 실라가 바울과 동행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There is one body and one Spirit—just as you were called to the one hope that belongs to your call.

에베소서 Ephesians 4:4

사도행전은 개인의 기록물이 아닙니다. 성령행전입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등장 인물들의 서로의 입장 차이에 주목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뜻”을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교회와 선교사역을 감당할 때, 서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 됨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협력의 길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And those whom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 and those whom he called he also justified, and those whom he justified he also glorified.

로마서 Romans 8:30

금문교회는 말씀에 선 온 세상의 모든 교회와 함께 “하나의 공교회”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금문교회에게 이 모든 교회 중에서 “하나의 교회”로서, “독특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와 “함께,” 그리고 따로 “홀로”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의 길을 다할 것입니다. 이 길에는 “틀리고 맞는” 대신, 각자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For the gifts and the calling of God are irrevocable.

로마서 Romans 11:29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써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선합니다. 부르신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And we know that for those who love God,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for those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로마서 Romans 8:28

기도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저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역의 길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된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